남구, 연말까지 '광주천 진·출입 자동 차단기' 구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천 일대 5곳에 하천 진·출입로 자동 차단기 설치에 나선다.

남구는 "돌발성 폭우로 하천 내에서 고립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 1억 7,242만원을 투입해 광주천 진·출입로를 원격으로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천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기후 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한 데다, 많은 비를 동반한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하천 내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남구는 호우경보 등으로 광주천 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출입로에 차단을 표시하는 줄을 매번 설치했는데, 진·출입로가 산재해 있어 통제시 많은 시간의 소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대교와 광주교, 중앙대교 좌·우, 부동교까지 5곳에 하천 진·출입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동 차단기 관리를 위해 건설과 사무실 안에 관제 상황실을 만들어 기상 변화에 따른 광주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해당 시설을 원격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하천 자동 차단기 설치 공사는 1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는 광주천 내 안전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내년에 하천 진·출입로 자동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곳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태 기자

서구, 마을자치의 시작 '주민총회' 추진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8월 31일 동천동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17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내년에 추진할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학교(학생)총회, 아파트총회, 마을의제학교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 상정할 마을의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이웃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사업, 동별 마을 BI(Brand Identity) 반영 사업 등이 제안됐다.

서구는 8월 31일 동천동, 양3동, 농성1동, 광천동을 시작으로 9월 5일, 6일, 7일, 21일, 24일, 27일, 28일에 17개 동의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풍암동은 올해 상반기에 총회를 이미 개최했다.

특히 이번 주민총회는 마을 BI를 담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축제형으로 추진된다. 총회는 동별 BI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보고, 내년도 마을의제사업 주민 투표, 다채로운 체험부스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 투표는 온·오프라인 사전투표와 총회 당일 현장 투표로 병행 진행하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의제는 주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올해 18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민자치 활동 자료집(영상·책자)을 제작해 활동사항을 알리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동구, 청렴 토크 콘서트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세대공감,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 인식 강화를 목표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택 구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퀴즈 상반기 우수 3개 부서와 8월 청렴퀴즈 당첨자 시상식을 열었다. OB 대표로는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YB 대표는 교통과 신해섭 주무관과 회계과 이희진 주무관 등이 참여해 청렴토크를 진행했다.

청렴토크에서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7개 문항에 대해 실시간 전자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청렴토크 콘서트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특히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세대 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마음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 광산구 수완동민의날 추진위원회는 최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수완동 개청 14주년을 기념해 제11회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제11회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

광주 광산구 수완동민의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수정, 이하 추진위원회)는 최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수완동 개청 14주년을 기념해 제11회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수완동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주민들에게 유공구민 표창 및 수완동민상 수상과 부대행사인 '수완 달빛 시네마'를 원당산공원 잔디밭에서 진행했다.

수완동민상은 3개의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지역발전 부문은 수완동 지역자율방재단 감사로 마을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천한 변성연(68)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김승현(65) 씨로 수완문화사랑회 회장으로 평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해온 오주현(61) 씨, 수완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정하정(50) 씨가 각각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상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도심 속 스마트팜' 개장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북구새마을회 및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도심지 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북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돼 오는 2일 '개장식'이 개최된다.

개장식은 북구새마을회 주차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 새마을회장단 등 사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시설 순회, 농산물 나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에 친환경 스마트 농법 시설을 구축해 도시 자원을 혁신적으로 재생한 사업으로 북구새마을회가 주관이 돼 추진됐다.

중문로 59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이번 도심 속 스마트팜은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해 물의 순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기술(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이 접목된 형태로 설계됐다.

북구는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비롯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애쓰신 북구새마을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이번 사업이 북구 마을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돼 지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2)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사	초광역1)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사	경남	통합(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